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조이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부활주일예배/새생명축제 Easter Sun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예수 부활했으니(찬154/새164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이강훈 장로 2부/이광수 집사 3부/이국선 장로 4부/김수빈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살아계신 주(Bill & Gloria Gaither)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요한복음 20:11-18 All together 다같이
4부/고린도전서 1:1-8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목격자

-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힘든 이, 기쁜 이, 별 일 없는 이에게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이 믿음 더욱 굳세라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찬155/새165장)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말하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In other words, I love you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딸이 자기 조카가 유아세례를 받는다고 집에 왔습니다. 평소 언니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언니가 딸을 낳았을 때 조카를 안고 감격하며 울던 막내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 중에 세례식은 단연코 제일로 꼽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순간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결단과 가족의 결심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10명이 넘는 아기의 유아세례 때도, 평상시대로 축복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녀딸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는 갑자기 양가 가족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열기가 느껴지면서, 그 짧은 순간에 주마등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화 필름 돌아가듯 빛의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그 순간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철모르는 막내딸까지 먼 곳에서 기차 타고 와서 참여하는 유아 세례식은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감사와 기쁨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비교적 많은 부활 주일입니다. 지나가는 손님들도 있으시고, 특별히 지인들의 초청으로 방문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매년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같은 마음이지만, 오늘은 더욱 새롭고 신선한 기대로 충만한 날입니다. 일주일 전, 우리 손녀딸이 세례를 받았을 때보다 더 큰 감동이 기대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손녀딸의 세례를 지켜보듯이, 오늘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천국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운 것보다 더 많이 모여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부여 주실 은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부활절에는 삶은 달걀을 선물로 나누며 먹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는 달걀을 상상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을 상징하는 달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선물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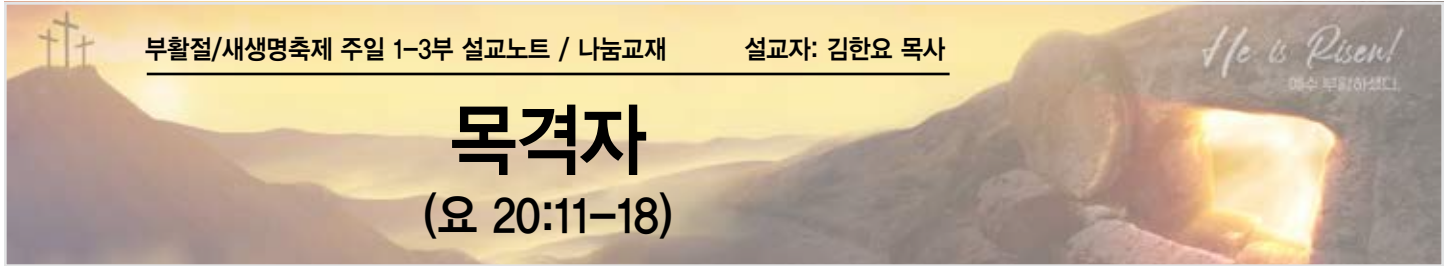
조카의 유아 세례식에 참여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막내딸을 기차역으로 데려다주는데,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며 자기 셀폰을 자동차 안의 스테레오와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노래 한 곡을 틀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래가 프랭크 시나트라 <Fly me to the moon>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학생이 이런 오래된 음악을 듣나?” 물었더니,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옛날 음악을 듣는 것이 유행이라고 답합니다. 한편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한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기차역을 데려다주는데, “...in other words, I love you...” 가사가 들립니다.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을 ‘사랑합니다!’

My youngest daughter, who just started 1st year of college, came home for her niece's Infant Baptism. She has always been very fond of her older sister. When older sister gave birth to a daughter, younger one held the baby in her arms and was moved to tears. Younger one came home to witness her niece's Infant Baptism. One of the most precious and glorious events for Christian is Baptism. It is a moment that you are born into God's family, and entrust your most precious child to God. You vow to raise the child in the Word and prayers. It is a family's day of commitment. This past Lord's Day, 10 babies were baptized. It was like any other baptism as I blessed them. However, when it came to my granddaughter's baptism, feeling the power of prayers from both sides of the families, in that short moment, I felt God's grace flowing through as if passing street lamps at a speed of light, like a movie. As the lyrics of a praise song that says “All is grace, grace-”, there was no way to explain God's presence at that moment. This Infant Baptism, with my youngest daughter who traveled on a train to attend, made that moment even more grateful and joyful.

Today is Easter. There are more first-time visitors coming to church than other Sundays. Some of you are visitors passing through. Many of you have received invitations to come. It seems the same every Easter. Today, however, feels refreshed and filled with high expectations. That is because of the expectation that this Lord's Day, as God pours His grace on us, will move us in greater ways than when my granddaughter was baptized a week ago. Like families gathered to witness a granddaughter being baptized, there will be gathering of great multitudes of heavenly angels and faithful forefathers, more than enough to fill a stadium, to receive God's grace on this day.

Every Easter we share hard boiled eggs. As we imagine pretty chicks hatching, these eggs represent new life. All of you attending our church for the first time are like these gifts. I pray that, as we worship with sincere hearts, you will meet Jesus in person, the first fruit of resurrection.

I was taking my youngest daughter to a train station to return to school after attending her niece's Infant Baptism. She said she had a song she wanted to listen and connected her cell phone to the car. I was surprised to hear that it was a song by Frank Sinatra <Fly me to the moon>. I asked, “How come a college student is listening to such an old song?” She answered that it is a trend now among college students to listen to old songs. In a way I was flabbergasted, but also amazed. As I was about to drop her off at the train station, I heard the lyric “...in other words, I love you...”. To all of you visiting today, ‘I love you!’



1. 문학평론가(literary critics)들이 성경의 부활 기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예, Reynolds Price, C. S. Lewis)

적용하기



2.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첫 목격자는 누구였으며, 그것이 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1) 본문에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13-15절)

2) 여인 마리아가 부활의 목격자인 것과 그의 출신이 왜 부활 사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을 반증합니까? (참고/ 눅 8:2)

3.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나셨듯이 나에게도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의 목격자 역할을 해냈습니까?(17-18절)

4. 오늘 처음 방문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합니다.

■ 적용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새가족 환영회

환영회 후 친정 같은 "헌가족"



새가족이 된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다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익숙하지 않고 어색했지만, 환영하는 손길들의 진심 어린 정성과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집의 따듯함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에 낯선 시집에 가족으로 자리 잡아 온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베델 교회이기에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하는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니 나의 어색함을 내려놓고 내미는 손을 잡고 함께 가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뤄진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이기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일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의 신부로 단장하여 베델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미화 성도(새가족)

올해 초 팀장님의 권면으로 새가족 사역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월 31일 올해 처음 열린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팀장님께 무엇 이든지 시켜주시면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아서 하게 된 일은 설거지였습니다. 2년 전 안수집사가 되면서 그동안 부엌일에 익숙해 있었기에 육체적으로 힘은 들었지만, 저한테는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열렸던 새가족 환영회는 정말 한없이 은혜스럽고 소중한 자리였고 제가 이런 축복된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기쁘고 영광이었습니다. 영접팀, 바나바, 장식팀, 주방팀, 정리팀까지 모든 팀이 하나가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베델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인지 느끼게 되었고 이 공동체에 속한 제가 또 얼마나 축복 받은 자인지 깨닫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델교회의 모든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김진환 집사(봉사자)

우리 부부는 휴스턴 텍사스에서 은퇴하고 딸과 함께 세식구가 출석하던 교회를 뒤로하고 이곳 캘리포니아주로 1월 중순에 이주했습니다. 3~4년 전, 이곳을 방문했을 때, 먼저 이주하신 유재홍 집사님 소개로 베델교회에 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한요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었지만, 전혀 낮설지 않았고, 아주 많은 감동과 은혜가 이어져 이주해오면 바로 여기가 우리가 몸담고 섬길 교회라고 작정했습니다.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후 새가족 환영회에 초대받아

교회에 도착하니, 처음 들어오는 길목부터 웃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성도님들을 지나쳐 목사님 부부와의 가족사진 찍기는 참 감명 깊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간의 역사와 사역들을 보고 들으며 교회에 대한 신뢰도 쌓였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잔치 음식으로 잡곡밥에 스테이크, 전, 해파리냉채 등 셀 수도 없는 음식들이 정성껏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

게 많은 성도님이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것에 놀랍고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마치고 나올 때에는 교회를 좀 더 알게 되었고, 이제는 진짜 이 교회 일원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주일 아침부터 남편이 "우린 이제 헌가족이야" 하면서 비전 주차장으로 차를 모는 모습에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영희 성도(새가족)



베델 교회 소개

한눈에 베델 큐(Cue)!!

부활의 기쁨 가득한 오늘, 새 생명 축제에 오신 VIP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46년간 이곳 얼바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웃, 사회)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저희 베델교회는, 기독교 연합선교회(C&MA: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교단에 속해있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24년간 베델과 함께 하였던 3대 손인식 담임 목사님에 이어, 2014년부터 4대 담임목사로 김한요 목사님께서 26명의 목회진, 17명의 스태프진과 함께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베델교회를 소개합니다.

1) 베델교회는 '창의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와 말씀, 양육, 영성, 교육, 선교, 봉사, 미디어라는 영역을 통해 팬데믹 중에도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기획하여 성도들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카카오 채널', '인스타그램' '베델 유튜브' 등의 매체는 이제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베델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와 수요 프로젝트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예수아)', 성도들의 삶의현장을 찾아가는 '베델인', 그리고 최근 새롭게 편성된 '걸어서 베델 속으로'라는 사역 체험 프로젝트 등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역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2) 베델교회는 모든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새가족반(4주), 양육반(16주), 청지기 재정교실(10주), 베델 제자반(30주), English Discipleship Training(30 weeks) 등의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전도폭발훈련(13주), 베델동산(2박 3일) 등 5단계 훈련과정의 있으며 단계별로 훈련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3) 베델교회는 '열정적 예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설립 때부터 베델교회는 은혜로운 예배, 성령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예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05년 시작된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엘새)를 통해 한 해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기도하여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 베델교회는 '복음의 실천'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소그룹 모임인 셀모임, 교회학교, 식당, 주차장에서 또한 각 부서의 사역지와 성가대에서, 선교 현장에서 손과 발로 직접 뛰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합니다. 또한 매년 20여 개국 이상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여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선교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5) 베델교회는 '이웃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영혼을 돌보는 사역으로 홈리스 사역, 양로원 방문, 병원 심방, 입양아 사역, 구제, 음식으로 암 환우와 가족을 섬기는 예방(예수님의 향기) 사역 등의 이웃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 베델교회는 '선교사를 양성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지난 수년간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혼란 속에서 온, 오프라인의 양방향 선교라는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구축한 베델교회는 선교지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침으로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히즈 윌(His Will) 프로젝트'로 선교지의 실제적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와 평신도를 연결하여 후원하는 BAM(Business As a Mission) Connect 사역의 틀을 마련하여, 평신도 선교사 시대를 향한 평신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생활의 방향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마무리됩니다. 말씀과 예배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베델교회를 통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셔서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델뉴스팀

출처: <베델교회 45년사> 책자

<http://bkc.org/media/webmagazine/resource/>

수요 예배

지금 무엇을 원하세요?



부족하지만 타주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던 저에게 코로나로 그동안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더 깊이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이곳 베델교회에서도 수요 찬양팀으로 부르셨습니다. 얼마 전 목사님 말씀과 같이 좋은 필레미농을 한 끼 먹는다고 며칠 끼니를 거를 수 없는 것처럼, 늘 주일예배를 통해 풍성히 먹지만 곧 다시 허기짐을 느끼는 연약한 저에게 수요예배는 차고 넘치는 영적 만찬과 같은 은혜와 감격의 자리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 많은 지체가 모여 함께 울고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수요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김재연 성도



주일에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고 버티기엔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 없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갈망하지만, 가정에서의 분주함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에게 수요일에 드리지는 예배는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값진 경험이 됩니다. "주여!"라고 합심하여 같이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감사한 시간이 되며 마치 기도의 군사가 된 느낌이 듭니

다. 수요 예배를 통해 자녀 양육과 돕는 배필로서의 지혜를 구하며 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구합니다.

김희영 집사



침단을 달리는 이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해 얼어붙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을 것 같았던 예배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시 열린 수요 예배입니다. 아직 낮이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일을 감사함으로 하기 원합니다. 밤이 오기 전에 찬양과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의 중간에 예배가 있는 수요일 아침이 참 행복합니다.

박선희 집사



수요 예배는 나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에 단비와도 같은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기쁨의 찬양과 진정한 예배,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허락되어 예배의 감격에 이어서 눈물로

기도드리게 되는 수요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여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눈먼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은혜로 거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에 실천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윤현정 성도



저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자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너무도 사랑하여 결국 물에 빠져 죽은 소년이 저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며 드리는 예배와 셀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믿고 살고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이 죄인을 복음을 위해 쓰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에 이제는 감겨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겠습니다.

홍성아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목사/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헝시바: 손용주 목사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욱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맞이하는 부활절은 어둠 속에서 비추는 한 줄기 빛만큼이나 신선함의 새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선물과 샌드위치와 커피 등을 마음껏 누리시며, 특별히 말씀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예수님 영접하시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델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하였으니 저희들의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하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김홍식 목사(믿음목장)

心から歓迎いたします。今日はわが主、イエスキリストが死を打ち破り、蘇られた復活祭の日です。主の復活は天地創造の前からわが人類を永遠の死から救うため、神様が立てられたご計画であり、われわれを愛してくださった神様の永遠の愛の実現でございます。イエスキリストの復活によって私たちにも最後の日に復活する希望と約束が与えられました。この希望と喜びをもって皆さんと一緒に信仰の交わりができる日本語礼拝部になることを心から望みます。もう一度、ベデル教会へお越しの皆さまをイエス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心から歓迎いたします。- 손용주 목사(일본어 예배)

Dear Friend, You are an honored guest at our church today. As a church, we are committed to the person of Jesus Christ and we base our ministry upon the Word of God. We believe that God can do extraordinary things in people's lives and we would love to see you experience the powerful love of Jesus. We are thankful that you are here! - Justin Kim 목사(영어 예배)

〈VIP를 위한 우리의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VIP와 함께 공유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닌 예배를 통해 은혜가 전달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날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주세요.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4,5월) | 4/24: ①부-이대은 ②부-이범석 ③부-이상원 ④부-김에스터
 5/1: ①부-우성무 ②부-이석희 ③부-이성준 ④부-김윤현
 5/8: ①부-이여송 ②부-이완희 ③부-이윤호 ④부-김준희

헝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4,5월) | 4/23: 김태윤 4/30: 김현욱 5/7: 김현일 5/14: 김호경
 강단꽃(4,5월) | 4/17: 노성애, 김성균, 조미리 4/24: 강문구, 김동심 5/1: 노성애 5/8: 곽연자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간호사-오선희 다음주 | 의사-최진선(내분비과), 간호사-김 명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익식(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감사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 **"참 잘되었습니다!"** 새생명축제 VIP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과 그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중, 결신 기도 시간에 진심된 마음으로 결신카드를 작성하여 통로에 있는 안내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와 인도자를 위한 샌드위치와 커피와 달걀, 그리고 사진부스가 코트야드에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부활절 달걀을 드립니다** 교회학교는 각 부서에서 직접 받으실 수 있고, 일반성도들은 본당 앞 코트야드에 설치된 부스에서 부활절 달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 **주차안내** 새생명축제 VIP들을 위해 비전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전 주차장 입구는 셔틀버스 진입로(원형 로터리)가 아닌 반대편 쪽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셔틀버스 운영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입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 3345 Michelson Dr STE 100, Irvine, CA 92612

◆ **베델 수요 예배 안내** 주중에 드러지는 공예배로서 수요예배가 매주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말씀과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것입니다. 예배실황은 저녁 7시에 Youtube로 방영됩니다.

문의: 박재영 집사 (714)980-1653

◆ **특별 프로그램 "걸어서 베델 속으로"** 새롭게 시작된 목요 프로젝트 "걸어서 베델속으로: 본격 사역체험 프로그램" 5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베델교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헌의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팀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동안 궁금했던 사역의 자리를 새롭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2022 상반기 베델 셀목자 "셀동산"** 셀식구들을 위해 말씀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셀목자님들을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2022년 상반기 셀목자들의 동산에 초대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나눔, 그리고 교제로 충만할 이번 셀목자 "셀동산"에 모든 셀목자님들은 참석하시어 큰 은혜와 함께 하는 기쁨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5월 14일(토) 오전 7시 30분, Bethel Grace 채플

◆ **2022년 베델 선교바자회** 베델 선교바자회가 5월 21일(토) 헵시바 예배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품판매 부스를 운영하실 분이나 물품을 도네이션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효선 집사 (714)438-9381

◆ **유년부 예배실 장소 변경** 유년부 예배실 수리로 인해 당분간은 초등부 예배실(Gym)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시간은 동일합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Bethel Announcements

◆ **니카라과 단기선교 팀원 모집** 5월 30일(월)부터 6월 4일(토)까지 니카라과에서 의료, 안경, 사진 등의 사역으로 함께 하신 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박지학 집사 (213) 210-3215

◆ **멕시코 일일 선교 팀원 모집** 멕시코 일일 선교가 5월 14일(토)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모임 일시/장소: 5월 5일과 5월 12일 목요일 저녁 7시, 조이채플

문의: 고석민 장로 (714)501-7456, 황기원 집사 (213)210-3215

◆ **영아부, K-1, 초등부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K-1(3부), 초등부(2,3부) 교사 혹은 TA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소망부 교사 및 TA 모집** 소망부(장애인, Hope Ministry)에서 4월 23일부터 6월 18일까지 베델 토요학교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섬겨주실 선생님과 TA를 모집 합니다.

문의: 박정민 전도사 (909)319-8023, 김종현 집사 (949)533-4520

◆ **교회학교 영어 QTin 5월달 영어교재** QTin 영어 교재가 5월부터 발매됩니다. 많은 봉사자분들의 헌신이 모여 QTin 영어번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전에 pdf file로 받아보셨던 QTin 영어교재를 실제 책으로 구매하여 보실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4월 24일(주일)부터 실내카페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부활주일 베델 사진관** 부활절을 맞아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시고 코트야드 포토존에서 가족사진을 찍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목회자 동정** KM 사역(충성 목장)에 초대된 목사께서 부임하여 오셨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 K국 단기선교가 4월 17일(주일)-27일(수)까지 있습니다.
- T국 아웃리치와 K국 단기선교가 4월 20일(수)-30일(토)까지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 김중석/변정아 성도의 가정에 아들 김예성(David)이 4월 14일(목)에 태어났습니다.
- 유형석/유원정 집사의 가정에 딸 유엘리(Ellie)가 4월 15일(금)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권미희 권사님(권덕칠 장로의 부인, 최지선 권사의 모친, 최영수 장로의 장모)께서 4월 14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1. How do literary critics evaluate the biblical account of the resurrection?
(E.g., Reynolds Price, C. S. Lewis)

Apply to Life



2. Who was the first eyewitness to the resurrection of Jesus? Summarize the meaning of it in two ways.

1) In the Scripture, Mary did not expect the risen Lord. How do you know? (Vv. 13-15)

2) Why does the woman Mary, a witness to the resurrection and her origin prove that the Bible record of the resurrection is a historical fact? (Ref/ Luke 8:2)

3. Do you believe that the resurrected Jesus will appear to you as He appeared to Mary Magdalene?
How does Mary serve as a witness to the Resurrection? (Vv. 17-18)

4. Pray for first-time visitors (VIPs) to meet the risen Lord.